28과 죄를 용서받는 제사 - 조성웅 목사

(??)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얽매인 죄 가운데서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충성되게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더욱 힘을 모아 주님의 귀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계수양회, 여름성경학교가 다가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더욱 어린 영혼을 위한 간절함으로 채워주시고 준비하는데 부족함 없고

또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Porque la ley, teniendo la sombra de los bienes venideros, no la imagen misma

de las cosas, nunca puede, por los mismos sacrificios que se ofrecen continuamente cada año, hacer perfectos a los que se acercan.

오늘은 죄를 용서하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레위기 4장 그리고 16장의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목표로는 이스라엘의 속죄제사에 대해서 알게 한다.

두 번째 구약의 속죄제사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림자임을 알게 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증을 갖는 어린이가 되게 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제사법은 그림자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해마다 늘 드리는바 같은 제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제사를 행했고 특히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로써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공과의 말씀은 대속죄제사 그리고 대속죄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공과 본문이 정해져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본분을 교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가운데 숨은 진리를 탐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제사법에 대하여는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법을 그 제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 목적에 따라서 다섯 가지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의 제사를 오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화제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거제 높이 쳐들어서 드리는 제사

요제 재물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전제 포도, 포도주와 같은 그런 재물을 부어서 쏟아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 목적에 따라 다섯 가지 제사가 분류가 돼 있는데 이 다섯 가지는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겠고 또한 의무제 꼭 드려야만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자원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고 의무제로는 속죄제와 속, 속건제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urnt offering이라고 돼 있습니다.

번제는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서 제단의 거룩한 불로 태워, 희생제물 전부가 연기로 하늘에 올라감으로써,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제사이다.

번제의 제물은 전소의 제물로도 불리고 있는데 그 특징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소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7장 8절 말씀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Y el sacerdote que ofreciere holocausto de alguno, la piel del holocausto que ofreciere será para él.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번제의 제물은 때로 온전한 제물, 전부 드리는 희생 제물로 불려집니다.

이 전소의 제물을 드리는 법에 대해서는 레위기 1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소, 양, 염소의 수컷으로 그 상태가 온전해야만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열납되어 속죄가 되고 또한, 또한 그는 이어서 제단 곁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의 주위에 뿌리고 그리고는 가죽을 벗기고 몇 분으로, 몇 부분으로 잘라 놓습니다.

희생제물의 내장과 발 정강이는 물로 씻어, 머리와 지방과 함께 전부 제단 위에서 불태웁니다.

희생제물이 새일 경우는,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가 사용되고, 이때는 손을 얹거나, 목을 따거나 하지 않고, 머리를 비틀어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이 전소의 희생제물을 고르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찾아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Habla a los hijos de Israel y diles: Cuando alguno de entre vosotros ofrece ofrenda a Jehová, de ganado vacuno u ovejuno haréis vuestra ofrenda.

예물이라고 기록 돼 있는 이 히브리 단어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의 뜻은 제물, 헌물, 예물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코르반”은 “카라브”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에서 유래했으며, 가까이 가져오는 것, 즉 드려진 것,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희생으로 드려질" 것이라는 의미에서나 또는 단순히 성소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신에게 '바치는 제물, 헌물, 예물'을 의미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죠

레위기 1장을 잠깐 잡아놓으시고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Pero vosotros decís: Basta que diga un hombre al padre o a la madre: Es Corbán (que quiere decir, mi ofrenda a Dios) todo aquello con que pudiera ayudarte,

그리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것은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 라고 하면 그만이다

백성들이 자기의 부모는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형식적인 재물을 드림으로써 그들의 의무를 다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야기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고르반이 번제의 예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유인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전소의 희생은 화제 히브리어로 “잇셰-”입니다.

로도 불리고 있다.

이 어원에 관해서는 그것이 불에 의해 살라지는데서, 그 이름을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이 희생제물은 그 성질상 여호와를 위한 향기로운 냄새로 불리고 있다.

이 의인적(擬人的)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번제는 공적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 요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의 이상적 관계의 유지, 또는 날마다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을(9분32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Así que, hermanos, os ruego por las misericordias de Dios, que presentéis vuestros cuerpos en sacrificio vivo, santo, agradable a Dios, que es vuestro culto racional.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No os conforméis a este siglo, sino transformaos por medio de la renovación de vuestro entendimiento, para que comprobéis cuál sea la buena voluntad de Dios, agradable y perfecta.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구약속의 번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Cereal offering입니다.

소제는 주로 피 없는 곡류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이다.

원래는 단독으로 드린 농경적 제사이었는데, 차츰 번제에 종속하는 제사가 되었다.

고운가루로 전병을 만들어 드리거나 첫 이삭을 볶아 찧은 것으로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제에 소금과 유향을 넣도록 하셨다

레위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Cuando alguna persona ofreciere oblación a Jehová, su ofrenda será flor de harina, sobre la cual echará aceite, y pondrá sobre ella incienso,

(2)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y la traerá a los sacerdotes, hijos de Aarón; y de ello tomará el sacerdote su puño lleno de la flor de harina y del aceite, con todo el incienso, y lo hará arder sobre el altar para memorial; ofrenda encendida es, de olor grato a Jehová.

(3)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찌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Y lo que resta de la ofrenda será de Aarón y de sus hijos; es cosa santísima de las ofrendas que se queman para Jehová.

하나님께 소제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운가루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빈자에게는 소제가 속죄제로서도 인정되었다.

그것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대한 행위의 분별, 충성과 감사를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이, 삶이 변화되고 또 주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며 또한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감사의 모습. 그것을 소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루가 다 갈아져야겠지요?

원래의 형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한 그러한, 그런 것이죠?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히 갈아지고 이제는 주님께 드리기에 합당할 만큼 갈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자라져, 자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소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룩을 취하라는 것은 죄를 제하라는 것이고 꿀을 제하라는 것은 인정과 일락을 제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서, 인정과 일락에 빠져서 사는 것이 합당치 않음에 대한 교훈이라 하겠다.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은 죄와 구별된 삶이고 또한 이 세상과 또한 인정과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Pero la que se entrega a los placeres, viviendo está muerta.

갈라디아서 말씀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Pero los que son de Cristo han crucificado la carne con sus pasiones y deseos.

이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도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이 소제에는 합당하지 않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며

3페이지 보겠습니다.

또한 누룩이 부패하게 하는 것이라면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인의 범죄를 막고 성결케 지켜줄 수 있음에 대한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 찌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찌니라
Y sazonarás con sal toda ofrenda que presentes, y no harás que falte jamás de tu ofrenda la sal del pacto de tu Dios; en toda ofrenda tuya ofrecerás sal.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Con qué limpiará el joven su camino?
Con guardar tu palabra.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죄와 인정 이것은 버리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패케 됨을 막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peace offering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와 친교를 위해,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린 제사이다.

히브리어 셸렘이 사용되는데, 이 단수형은 아모스 5장 2절에서만 사용되었고, 86회나 복수형 셸라밈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특히 번제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동물희생의 제사로서, 자원하는 제사로 드려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독의 제사로 보다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는데, 나실인의 제사의 경우가 그것이다.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제단불로 사른 반면,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만 제단불로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일부는 봉헌자에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이 허용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번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이 화목제는 국가적인 경축시에 드려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칠칠절 즉 오순절, 또는 제사장의 성별식에 있어서, 공적인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져서 생긴 거리를 회복케 해 주셨습니다.

화목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성도의 화평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Justificados, pues, por la fe, tenemos paz para con Dios por medio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이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아직 믿음 없이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적이 없이 하나님과는 화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전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고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y por medio de él reconciliar consigo todas las cosas, así las que están en la tierra como las que están en los cielos, haciendo la paz mediante la sangre de su cruz.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Sin offering

죄제로도 번역된다.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동물 희생의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러 가지 희생제사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인데, 드리는 자의 경제적 상태라든가, 신분에 따라 희생제물을 달리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수송아지, 온 회중도 수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 또는 어린 암양이었습니다.

이들 가축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 극빈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속죄제의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입도록 하시려는 깊은 자비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죄제의 의식은 죄의 고백, 안수, 봉헌자에 의한 도살, 온 회중의 경우는 대표자에 의한 도살, 장 앞에 를 뿌리는 일,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일, 그 나머지는 단 밑에 쏟는 일, 사체의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회는, 1년에 한번, 전 국민의 죄를 위해 행해지는 7월 10일의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시대 속죄제의 일시성과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참된 속죄제로서의 예수그리스도에 의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첫 말씀으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해마다 그를 드리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어 죄를 담당함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히 10: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pero Cristo, habiendo ofrecido una vez para siempre un solo sacrificio por los pecados, se ha sentado a la diestra de Dios

구약시대의 속죄제 그 모습이 바로 예수그리스도가 삽자가에 달려서 피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누리신 구속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대속제일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사를 온 민족적으로 드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죄를 속하는 대제일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제사가 드려지는 속죄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7월 10일, 모두 일을 쉬면서, 금식하고 대제사장은 자기와 그 가족과 전 국민의 죄를 성결케 하기 위한 속죄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은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임으로, 탁월한 날의 의미의날, 아람어로 요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실제로는 27:9)에서는 '금식하는 절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은 그들의 통회와 회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속죄일 날 두 마리의 염소 중 한 마리는, 온 회중의 죄를 지게 하여,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레 16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무시로 쉽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고, 오직 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들어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고 이제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장 5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Y he aquí, el velo del templo se rasgó en dos, de arriba abajo; y la tierra tembló, y las rocas se partieron;

구약시대 속죄 제사는 대 제사장이 1년에 4차씩 나아갑니다.

일반백성들은 나아갈 수 없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이 쪼개져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요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ús le dijo Yo soy el camino, y la verdad, y la vida; nadie viene al Padre, sino por mí.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Así que, hermanos, teniendo libertad para entrar en el Lugar Santísimo por la sangre de Jesucristo,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por el camino nuevo y vivo que él nos abrió a través del velo, esto es, de su carne,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에 의해 속죄의 길은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자유로이 교통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Acerquémonos, pues, confiadamente al trono de la gracia, para alcanzar misericordia y hallar gracia para el oportuno socorro.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제사 중 마지막 속건제

Guilt offering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함께 속죄의 의미를 가진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속건제는 하나님 또는 남에 대해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 구체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명사 [아-샴-]은 과실, 과오를 의미하고, 속건제, 죄과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속건제에는 수양이 요구되고, 그것에 배상의 원물과, 그 원물의 가격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이 희생의 피는 속죄제와도 달라 제단 뿔에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과실이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관련이 있는 일로 보아, 모든 과실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자신을 드려 속건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섯 가지의 제사를 기억하실 수 있겠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제사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줌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타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 있다 라고 혹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것이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속건제와 속죄제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옛 성품은 점점 사라져가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번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니 다섯 제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이야기 한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제사를 하나하나 연구해보고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바로 속죄제사에 대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속죄제사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로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신분의 차이, 경제적 상태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회중의 속죄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로 21절 말씀 조금은 긴 말씀인데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Si toda la congregación de Israel hubiere errado, y el yerro estuviere oculto a los ojos del pueblo, y hubieren hecho algo contra alguno de los mandamientos de Jehová en cosas que no se han de hacer, y fueren culpables;

(14)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luego que llegue a ser conocido el pecado que cometieren, la congregación ofrecerá un becerro por expiación, y lo traerán delante del tabernáculo de reunión.

(15)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Y los ancianos de la congregación pondrán sus manos sobre la cabeza del becerro delante de Jehová, y en presencia de Jehová degollarán aquel becerro.

(16)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Y el sacerdote ungido meterá de la sangre del becerro en el tabernáculo de reunión,

(17)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y mojará el sacerdote su dedo en la misma sangre, y rociará siete veces delante de Jehová hacia el velo.

(18)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Y de aquella sangre pondrá sobre los cuernos del altar que está delante de Jehová en el tabernáculo de reunión, y derramará el resto de la sangre al pie del altar del holocausto, que está a la puerta del tabernáculo de reunión.

(19)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Y le quitará toda la grosura y la hará arder sobre el altar.

(20)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찌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Y hará de aquel becerro como hizo con el becerro de la expiación; lo mismo hará de él; así hará el sacerdote expiación por ellos, y obtendrán perdón.

(21)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 같이 사를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Y sacará el becerro fuera del campamento, y lo quemará como quemó el primer becerro; expiación es por la congregación.

속죄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둘째는, 제물의 피가 흘려지는 것이고

셋째는, 제물의 몸이 성 밖에서 태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 피가 흘려진 것 몸이 태워지는 것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속죄 제사를 생각하면 송아지나 염소와 같은 제물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다.

그런데 제물보다 먼저 생각되어져야 하는 것은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죄를 깨닫는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4장 13절에서도 살펴보았지만 23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 4:23)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luego que conociere su pecado que cometió, presentará por su ofrenda un macho cabrío sin defecto.

28절에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luego que conociere su pecado que cometió, traerá por su ofrenda una cabra, una cabra sin defecto, por su pecado que cometió.

속죄제사에 있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속죄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게 했습니다.

레위기 4장 말씀은 잡아 놓으시고 이사야 1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Para qué me sirve, dice Jehová, la multitud de vuestros sacrificios? Hastiado estoy de holocaustos de carneros y de sebo de animales gordos; no quiero sangre de bueyes, ni de ovejas, ni de machos cabríos.

(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Quién demanda esto de vuestras manos, cuando venís a presentaros delante de mí para hollar mis atrios?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사를 요구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철저히 그들의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15절 말씀에

(사 1: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Cuando extendáis vuestras manos, yo esconderé de vosotros mis ojos; asimismo cuando multipliquéis la oración, yo no oiré; llenas están de sangre vuestras manos.

이와 같이 죄가 있는 상태에 그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허락하신 것은 형식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삯을 치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지 그러한 짐승이 죽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6절 보면

(16)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Lavaos y limpiaos; quitad la iniquidad de vuestras obras de delante de mis ojos; dejad de hacer lo malo;

(17)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aprended a hacer el bien; buscad el juicio, restituid al agraviado, haced justicia al huérfano, amparad a la viuda.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

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Venid luego, dice Jehová, y estemos a cuenta: si vuestros pecados fueren como la grana, como la nieve serán emblanquecidos; si fueren rojos como el carmesí, vendrán a ser como blanca lana.

이것은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 같이 희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속죄 제사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또한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음을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함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시 51:16)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Señor, abre mis labios,
Y publicará mi boca tu alabanza

(시 51:17)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Los sacrificios de Dios son el espíritu quebrantado;
Al corazón contrito y humillado no despreciarás tú, oh Dios.

시편 34편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Cercano está Jehová a los quebrantados de corazón;
Y salva a los contritos de espíritu.

그래서 속죄 제사의 전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번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물, 피가 요구됩니다.

제사장과 회중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려야하며 족장을 위해서는 수염소, 평민을 위해서는 암염소나 암 어린 양을 드려야 했다.

그리고 평민 중에서도 형편이 암염소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로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물을 이제 잡고 피를 흘리게 되죠.

레위기 4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Y el sacerdote ungido meterá de la sangre del becerro en el tabernáculo de reunión,

(17)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y mojará el sacerdote su dedo en la misma sangre, y rociará siete veces delante de Jehová hacia el velo.

(18)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Y de aquella sangre pondrá sobre los cuernos del altar que está delante de Jehová en el tabernáculo de reunión, y derramará el resto de la sangre al pie del altar del holocausto, que está a la puerta del tabernáculo de reunión.

죄를 깨닫고 제물이 준비되면 안수하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회막 안에 있는 장 앞에 일곱 번 뿌리고 또 피를 단 뿔에 바르고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제물이라고 하면 피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은 완전히 불태워져야 합니다.

레위기 4장 21절에 보면

(레 4:21)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 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Y sacará el becerro fuera del campamento, y lo quemará como quemó el primer becerro; expiación es por la congregación.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제물의 모든 것이 완전히 태워져야 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속죄제로 드려진 수소, 수송아지와 같은 제물, 즉 피가 회막 안에서 뿌려

진 제물은 반드시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완전히 태워 버려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6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Mas no se comerá ninguna ofrenda de cuya sangre se metiere en el tabernáculo de reunión para hacer expiación en el santuario; al fuego será quemada.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 드려질 완전한 속죄제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속죄 제사로 드려졌던 제물의 피와 몸은 예수님의 피와 몸을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에

(22)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Y mientras comían, Jesús tomó pan y bendijo, y lo partió y les dio, diciendo: Tomad, esto es mi cuerpo.

(23)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Y tomando la copa, y habiendo dado gracias, les dio; y bebieron de ella todos.

(24)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Y les dijo: Esto es mi sangre del nuevo pacto, que por muchos es derramada.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고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속죄제의 희생 제물로(? 35분 49초)

속죄 제사의 제물은 피가 흘려져야 했으며 그 몸은 철저히 태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체보다는 그림자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의식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영원한 속죄제가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율법을 지킴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는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림자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히브리서 10장 3절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Pero en estos sacrificios cada año se hace memoria de los pecados;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속죄제가 계속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철저히 죄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구약시대 속죄제사는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림자에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신 것은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실체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속죄제사 .

예수님은 스스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 즉, 온 세상 사람의 속죄제물,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리, 그리고 친히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사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Todos nosotros nos descarriamos como ovejas, cada cual se apartó por su camino; mas Jehová cargó en él el pecado de todos nosotros.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오신 모습을 보고 요한은 외쳤습니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El siguiente día vio Juan a Jesús que venía a él, y dijo: He aquí el Cordero de Dios, que quita el pecado del mundo.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셨습니다.

세상죄를 지신 이유는 바로 그 세상죄에 대한 속죄제물 희생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Por lo cual también Jesús, para santificar al pueblo mediante su propia sangre, padeció fuera de la puerta.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바로 구약시대에 죄용서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속죄제사의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Pero estando ya presente Cristo, sumo sacerdote de los bienes venideros, por el más amplio y más perfecto tabernáculo, no hecho de manos, es decir, no de esta creación,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y no por sangre de machos cabríos ni de becerros, sino por su propia sangre, entró una vez para siempre en el Lugar Santísimo, habiendo obtenido eterna

redención.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성막 안에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언젠가 나이가 많이 들고 죽습니다.

그 제사의 직분도 계속 갈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드린 속죄제사를 드린 곳은 성, 성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원대한 장막 온전한 성소에서 드리는 것이고

또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en quien tenemos redención por su sangre, el perdón de pecados según las riquezas de su gracia,

구약시대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닫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왕궁에 거하는 것이 마땅한데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문 밖, 진 밖은 골고다 언덕을 말하며 저주의 장소, 죽음의 장소입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사에서 수송아지의 몸은 이곳 성 밖에서 철저하게 태워졌습니다.

무엇 무엇을 태우다라는 말은 제물을 태워 냄새를 피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고기를 완전히 태워 재로 만들어, 만들어 버리는 것의 두 종류가 있는데 속죄제사에서는 후자를 의미합니다.

즉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철저한 저주와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저주와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에게 화목제, 소제, 번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시대 불안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던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삶, 소제를 드리는 삶,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11)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Porque los cuerpos de aquellos animales cuya sangre a causa del pecado es introducida en el santuario por el sumo sacerdote, son quemados fuera del campamento.

11절 말씀은 구약시대 속죄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

(12)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Por lo cual también Jesús, para santificar al pueblo mediante su propia sangre,

padeció fuera de la puerta.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속죄의 모습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Salgamos, pues, a él, fuera del campamento, llevando su vituperio;

그리고 이제 우리,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삶이고 또한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문 밖은 저주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된 자로서 철저히 우리 옛 성품은 깨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Porque el amor de Cristo nos constriñe, pensando esto: que si uno murió por todos, luego todos murieron;

(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y por todos murió, para que los que viven, ya no vivan para sí, sino para aquel que murió y resucitó por ellos.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제는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며 또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의 공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번 용, 죄를 용서받는 제사에 대한 공과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능력을,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그림자로써 보여주셨고 또한 그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이 들여졌는가를 생각해봄으로써 우리 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참으

로 그 죄를 용서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고 또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